

마쓰다이라 집안 묘소

이 묘소는 히메지성의 명목상 9대 번주 마쓰다이라 나오토(1604~1648)를 모시고 있습니다. 나오토는 1648년에 히메지번의 번주로 임명되었으나, 먼 도호쿠 지방 야마가타현에 있었던 이전의 번에서 히메지로 오던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지위는 아들인 나오토리(1642~1695)가 승계했습니다. 나오토는 가나가와현의 사이조지 절에 매장되어 있었으나, 짧은 재임기간이었어도 히메지 번주였다고 하여 1670년, 나오토리에 의해 묘소를 여기로 이전해 건립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 번주의 배치는 도쿠가와 집안의 쇼군이 결정했는데, 막부는 통치하는 지역에 대한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의 영향을 제한하고 무장 봉기를 막기 위해 다이묘를 빈번히 교체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나오토와 나오토리는 몇 번이나 번을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러한 경력에서 ‘이사 다니는 다이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벽에 둘러싸인, 중앙에 있는 불탑에는 불교 우주론의 다섯 요소를 나타내는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空’, ‘風’, ‘火’, ‘水’, ‘地’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地’라는 문자 주위에는 나오토 사후의 계명 및 그의 다양한 칭호와 계급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위의 돌로 쌓은 벽은 몇 세기가 지나는 동안 일부가 파괴되어 가장 앞부분만이 17세기 벽의 외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묘 맞은편 벽은 원래의 돌을 사용해 재건했는데 본래는 균일한 높이였습니다.